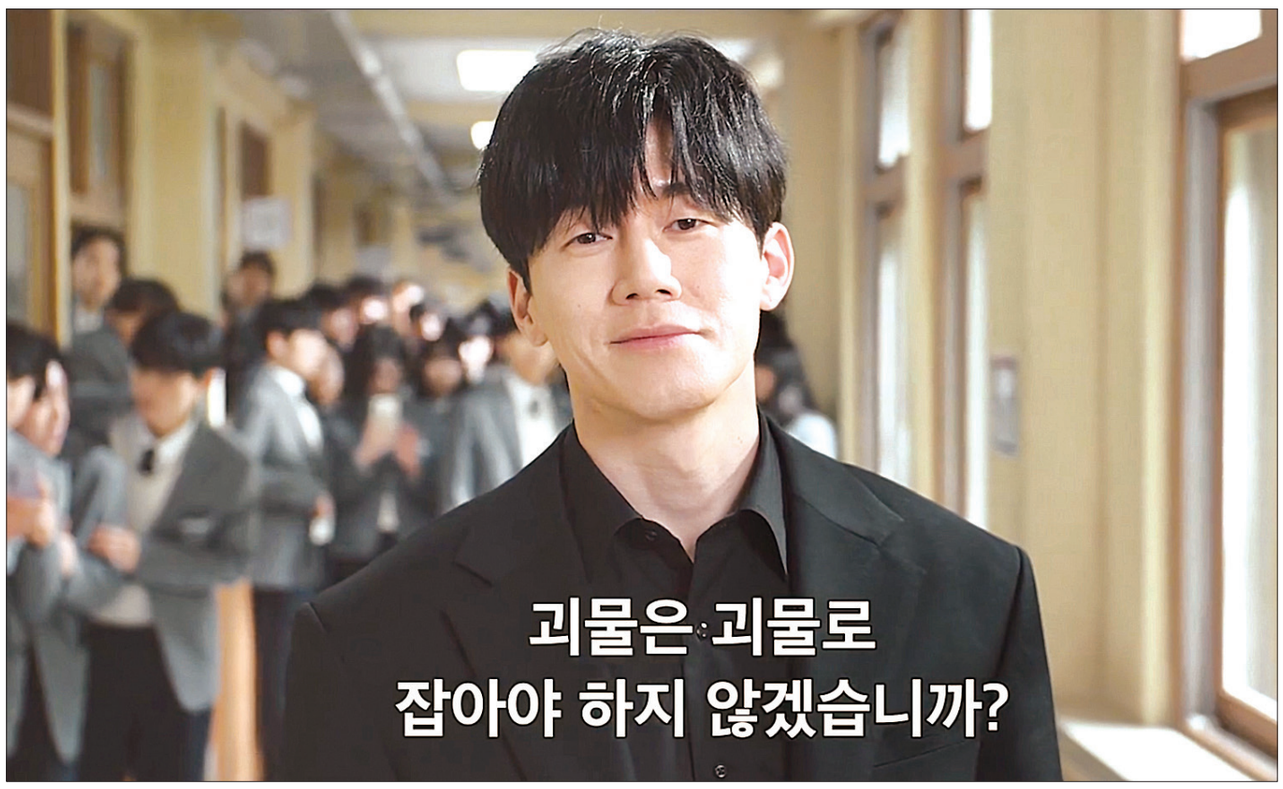
# 중도적 교육 대안 깊이 고민해야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㊲ '참교육'(2026)




드라마 '참교육'은 폭력으로 가해자를 응징하며 교육 현실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지만, 그 극단적 방식 탓에 '폭력 드라마'라는 엇갈린 평가도 동시에 받고 있다.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와 교사의 책임인 만큼, 불교계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중도적 교육 대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사진 출처=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학교 옥상 끄트머리에 남학생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학생의 이름은 박대석. 대석은 퀭한 눈으로 건물 아래로 뛰어내린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비명으로 바뀌는 동안, 대석을 애절하게 지켜보던 눈빛 하나가 있다. 바로 대석보다 먼저 차기 대선주자의 아들인 류준형 패거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김경민이다.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유야무야 문제를 처리한 대한고등학교. 대석이 사라지자 경민을 향한 괴롭힘이 다시 시작된 그때, 복도에서 경민을 폭행하던 준형 패거리의 김광수가 검은 양복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온몸이 휘청일 만큼 강력한 따귀를 맞는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광수는 "당신 뭐야? 선생이야?"라며 대드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어른한테는 반말하지 않는다"며 또 한 번, "복도에서는 뛰지 않는다"며 또 한 번, "학교에서는 떠들지 않는다"며 또 한 번, 학교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 규범을 어기는 광수를 향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계속 뺨을 때린다. 이 소란에 부랴부랴 나타난 교장과 교사들이 정체를 묻자 남자는 '대한민국 교권보호국 감독관 나화진'이라는 신분증을 내민다.

학교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하는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최강석(배우 이성민)이 창설한 교권보호국의 현장감독관 나화진(배우 김무열)과 임한림(배우 진기주)이 교권보호국 사무관 봉근대(배우 표지훈)와 함께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거침없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내용이다.

교권보호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대한고등학교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에서 나화진이 직접 설명한다. 교권보호국은 "학생 하나가 죽어 나가도 경찰과 사바사바해서 대충 덮어버리려고 하는 쓰레기 같은 학교를 특별 지도하는 곳"인데 그런 교권보호국 감독관에게는 한 가지 특수한 권한이 있다. 지도 방식에 그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것이다. 이 제한 없음은 나화진의 입을 통해 "말로 해서 듣는 놈은 말로, 때려서 듣는 놈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말로 설명된다.

이처럼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은 현장에서 무력에 맞서 무력을 쓰는 파격적인 조치도 해야 하기 때문에 나화진이나 임한림은 모두 특전사 특임대대 출신이다. 현장 감독관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점이 드라마 '참교육'이 전하려는 주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거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옛말이 된 지 오래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더 이상 일반적인 훈육으로는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문제는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훈육은커녕 범법 행위조차도 제어할 방법이 미비하기에 계속해서 피해자들이 생기고 그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드라마의 각 에피소드는 각종 문제가 있는 학교에 임시교사로 파견된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피해 교사나 학생들을 대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것을 나화진은 "자신이 한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받음으로써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교권보호국이 추구하는 진짜 교육"이라고 말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게 하는 해결 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에피소드가 현중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제5화다. 현중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 교사로 부임한 최지선(배우 송시안)은 첫날부터 우진 엄마 이지영(배우 박지연)에게 문자메시지로 온갖 지시를 받는다. 우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니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는 평범한 수준이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그날의 옷차림을 '지적질'하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쏟아내거나 개인 SNS에 악플을 달고 집까지 찾아와 윽박지른다. 삶의 모든 의욕을 잃은 최지선을 대신해

**문제 학교 파견된 교권보호국 감독관**
**폭력 불사 참교육, 악성 학부모 응징도**
**폭력 굴복 방식 한계에도 세계적 흥행**
**올바른 교육 위해 대안 모색해야 할 때**




'참교육' 포스터. 사진 출처=넷플릭스

우진의 담임을 맡은 나화진은 이지영이 했던 일을 그대로 되갚아준다. 우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고 아동 학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허구한 날 아무 시간에나 전화로 쏟아붓고, 결국엔 이지영의 항복을 받아낸다.

드라마 '참교육'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면서 큰 화제를 불러왔고, 공개된 지 2주 만에 넷플릭스 전체 시청수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더니 곧바로 갤럽에서 조사한 2026년 6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1위에 올랐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17대 1'이 아니라 '170대 1'도 거뜬할 만큼 막강한 무술 실력을 갖춘 주인공들이 인면수심의 악랄한 가해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울분을 풀어주고, 나아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악의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속 시원한 내용 덕분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제도 개선 등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공권력의 응징에 기대는 부분, 특히 드라마에서 펼치고 있는 참교육의 방식이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진실하고 올바른 교육'이 아니라, 상대를 힘으로 응징하고 항복시키는 폭력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근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세상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부모의 책임 문제로 보인다. 이 점은 촉법소년을 다루는 제6화에서 두드러지는데, 자신의 자식들이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앞날이 창창한 아이들에게 한 번쯤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부모들에게 교육부 장관 최강석은 이렇게 일갈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당신들이 가르쳤어야 하는 거야. 당신들이 못 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못 하면 사회에서 가르쳤어야 했다고! 아무도 못 하니까 교권국이 나선 거 아니야! 교권국이라도 가르치겠다고! 사람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잘못에 책임을 져야지." 가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래도록 고통받는 현실 세상에 울리는 경종이다.

부처님은 〈선생경(善生經)〉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다. 첫째 악을 듣거나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착하고 바른길을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하며, 셋째 사랑이 사무쳐 내면화되도록 해야 하고, 넷째 바른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보살펴야 하며, 다섯째 필요한 물품을 제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아함경〉에서는 부모는 은혜를 베풀고, 다정한 말을 하며, 이로운 행동을 하고, 이로움을 같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덕목이 대승불교로 이어져 보살이 중생을 교화할 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행(利行), 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이 됐다. '보시'와 '이행'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애어'는 자녀를 칭찬하는 긍정적인 양육법이며, '동사'는 자녀의 상황에 따라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해 주는 등 정서적으로 포용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끌어가는 자녀 양육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학교 내 학생들의 체벌은 물론이고 가정 내 아동 체벌도 법으로 금지된 나라다. 이는 과거 학교에서 무자비하게 벌어졌던 교사들의 폭행과 아이를 학대하는 몰지각한 부모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교권이 무너지고 교권을 보호하는 '교권보호국'의 존재가 절실한 세상이 돼버렸다. 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한 것일까.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갖가지 폭력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동시에 '폭력 드라마'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드라마 '참교육'. 비록 드라마상에서는 폭력이 난무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폭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부모와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가정과 학교와 아이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중도적인 대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불교계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숙제를 준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